

전북대 박재훈 박사과정생, 치과학회 우수포스터상

전북대학교 박재훈 박사과정생(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이 최근 열린 '2023년 제89회 대한치과보철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박재훈 박사과정생은 비전형적 악궁 형태를 가진 완전 무치악(치아를 전부 상실한 상태) 환자를 대상으로 종래의 인상법과 3D 스캔법을 비교한 증례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학회와 치과보철학 발전에 공헌한 내용을 인정받아 치과보철학회의 우수포스터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재훈 박사과정생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북대 치과 보철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우리대학과 치과보철학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창업 역량 강화에 적극 지원할 것”

전주대 '연합 STARTUP BOOT CAMP' 성료

전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는 최근 전주대, 광주대, 원광대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23 STARTUP BOOT CAMP'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내 창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캠프에서 발굴한 우수 아이디어들을 교내 창업동아리로 연계하고자 마련했다.

캠프는 총 15개 팀으로 구성, 전담 멘토 5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 멘토로는 키이스트 인태육 교수, 아이디어파트너스 이몽민 부자 심사역을 비롯해 3명이 멘토 위원으로 함께했다.

전주대 산업디자인학과 이소은·김세빈·최은비 학

생으로 구성된 '최소근세근팀'은 '세탁소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 앱'이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해 대상을 차지했다.

또한 산업디자인학과 류지민·이재민·서무진·황보람 학생으로 구성된 '곰서른팀'이 집안의 작은 숲, RCO Forest' 아이디어를 발굴해 우수상을 받았다.

김기정 창업교육센터장은 "우리 학생들이 이번 연합 창업캠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학생들의 창의력과 창업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캠프가 계획대로 잘 진행됐고, 앞으로도 창업 역량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SMAT A모듈 자격증 취득 교육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사업단은 지난 22~24일 3일간 SMAT(서비스경영자격) A모듈 자격증 취득과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LINC 3.0 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학생들의 인성 비즈니스 매너, 고객심리의 이해, 고객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해 진행했다.

SMAT(서비스경영자격)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KPC(한국생산성본부)가 시행하는 자격증으로, 서비스 직무의 현업 역량을 평가하는 실무형 국가공인 자격이다.

이번 SMAT(서비스경영자격) A모듈 교육에는 LINC 3.0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7명이 참여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교육은 전공 자격증과는 달리 회사에 취업해 일상적인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매너/에티켓 교육을 통해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여서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승훈 LINC 3.0 사업단장은 "SMAT A모듈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을 통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 서비스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청소년 보호·선도 캠페인

남원시가 청소년의 말을 맞이해 지난 23일 남원시(여성가족과 보건소), 남원경찰서, 남원교육지원청, 남원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생활주변 유해업소 밀집지역(변화과 등)에 대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청소년 이성훈식 등 묵인·방조 행위 △술·담배 등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등 배포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및 출입·고용 제한 내용 표시의무 위반 행위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표시 부착여부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을 진행했다.

남원시 차미화 여성가족과장은 "유해환경 점검과 제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유관기관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



도록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기전대-임실군 오수 팻 추모공원 협약 체결

전주기전대학 Heal-being 농생명 ICC 반려동물과는 지난 23일 LINC3.0 사업단 회의실에서 임실군 오수 팻 추모공원(대표 박초이)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반려동물에 대한 지역민 의식 개선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재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 마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추진 △지자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원 교수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양 기관이 도움을 주고받으며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공유·협업을 추진하겠다"며 "반려동물 산업 관련 교육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교육기관과의 상생협력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기전대학 반려동물과는 Heal-being 농생명 ICC 특화 분야의 강점 을 기반으로 임실군과 오수자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남원농기센터, 신규 농업인 구황작물 빵 만들기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1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주천면 하주 말뚝마을에서 구황작물(고구마) 빵 만들기 체험을 추진했다.

교육생들은 4~5명을 1개조로 구성해 재료를 직접 계량하고 반죽해 반죽 안에 앙금을 넣어 고구마 모양을 만든 후 오븐에 구워 빵을 완성하였으며, 기다리는 동안 교육생들은 하주마을 체험 경험과 소감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구황작물 고구마 빵은 얇은 빵 안에 고구마 앙금을 가득 채우고 자색 고구마의 결모습을 구현한 빵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금구면 복지기동대,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봉사

김제시 금구면(면장 두일균) 복지기동대(대장 권혁운)는 24일 금구면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대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갖고 목거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 14세대에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봉사를 실시했다.

금구면 복지기동대는 계속해서 대두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접 발굴 및 타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발굴에 힘쓰고 있다.

대상자 어르신께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줄어들어 가스타이머 설정을 통해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어 안심이다"라고 말했다.

권혁운 복지기동대장은 "이번 봉사를 앞두고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했다며,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스 화재를 기동대의 작은 봉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어 뿌듯하다"라고 밝혔다.

두일균 금구면장은 "같이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복지기동대의 봉사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었다며,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여 더욱 발전하도록 힘쓰자"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덕일중, 학교텃밭 조성 운영

전주덕일중학교(교장 양항룡)는 2023학년도 자유학기제 수업의 일환으로 학교텃밭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학교 내 작은 부지에 텃밭을 조성, 이를 친환경 텃밭 체험의 장으로 마련했다.

이는 도시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텃밭을 학교 내에 조성해 이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스마트 농업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수확한 작물은 오픈 마켓을 통해 마을 교육 활성화 소재로 활용된다.

이밖에도 덕일중학교는 모의재판, 목공 수업 등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사회복지협, 남원테마파크와 협약 체결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사회적약자 공동 지원하기 위해 남원테마파크(주)와 지난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환경식 남원테마파크(주) 대표, 노재규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장, 한진수 상무, 정일석 사무처장 등 4명이 참석, 앞으로 남원지역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문화 체험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테마파크는 남원지역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사회복지기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월별 이벤트를 실시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에 기여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석대 남천현 총장,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 동참

우석대학교 남천현 총장이 'NO EXIT, 출구가 없다'라는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24일 대학 본관 2층 집무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남 총장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홍보 피켓을 들고 인증 사진 촬영한 후 우석대학교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에 게시했다.

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퇴출을 위한 국민 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남 총장은 "이번 릴레이 캠페인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국가로 나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을 뿌리 뽑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이 캠페인에 동참한 남천현 총장은 정강선 전북체육회장과 이영준 전북과대학 총장을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추천했다. /정은성 기자



김승기 무주 교육장, 마약범죄 온라인 릴레이 동참

무주교육지원청 김승기 교육장은 지난 24일 교육장실에서 마약범죄예방 온라인 릴레이 '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무주경찰서 유봉현 서장이 시작한 무주 'NO EXIT' 캠페인은 두 번째 환인홍 무주군수를 세 번째로 이혜양 무주군의장에 이어 네 번째 주자로 김승기 교육장이 지목돼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것.

김 교육장은 "미래 사회의 일원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마약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무주 교육 가족과 함께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학생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기교육장은 무주 'NO EXIT' 캠페인 다음 주자로 김법섭 무주군 농업지부장을 지목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위상양 장수 보건의료원장, 마약퇴치 캠페인 참여

위상양 장수군 보건의료원장은 23일 장수군 보건의료원 원장실에서 'NO EXIT, 출구가 없다(출구없는 미로)'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의 위험을 알리고 마약 투약 및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범국민적 예방 캠페인이다.

위상양 원장은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으로부터 장수군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시, '시민과 함께 클린 동행' 환경정화활동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역내 사회단체·시민단체 및 공무원 등이 힘을 합쳐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민과 함께 클린 동행'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날 환경 정화 활동은 김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전 쓰레기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방치폐기물, 하천변의 묵은 쓰레기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했다.

또한 환경정화활동 뿐만 아니라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배출요일제 홍보도 병행 추진하며 깨끗한 김제시 만들기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